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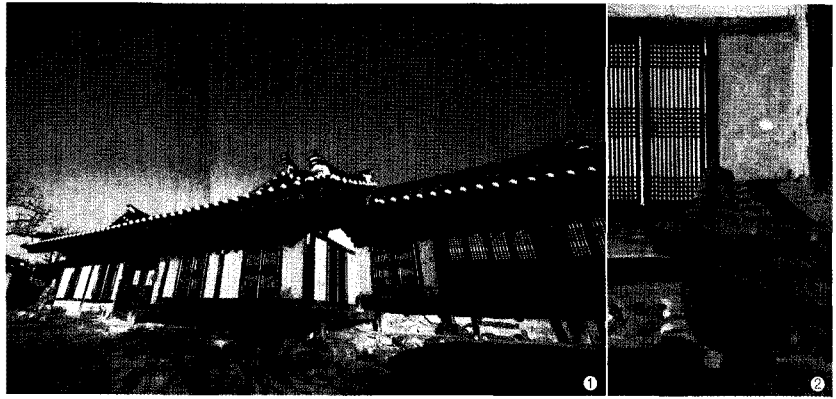
과기마을에서 고래불까지

내딛는 걸음마다 옛 향기 은은한 길

일령이는 대숲을 지나자 울창한 소나무숲이 나왔다. 목은기념관을 돌아 마을로 내려가는 길, 물결치는 기와지붕 한옥마을이 한 눈에 들어왔다. 스산한 겨울바람조차 포근히 안아 줄 것 같은 돌담길을 따라 마을을 나섰다. 대진항을 지나 4km 술숲과 백사장이 이어지는 고래불해변은 겨울바다의 낭만으로 가득했다.

글 사진 장태동(여행 칼럼니스트)





① 영양 남씨 과시마 종택 ② 오래된 한옥은 갈라진 나무 결 하나하나 눈길을 끈다 ③ 목은 이색 기념관 ④ 과시마을 돌담길 풍경

대한민국 겨울을 상징하는 삼한사온 법칙은 세월과 기상이변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 맞는다. 며칠 만에 춥지 않은 겨울 아침을 맞았다.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과시마을로 가는 날, 기온은 따뜻하고 하늘은 푸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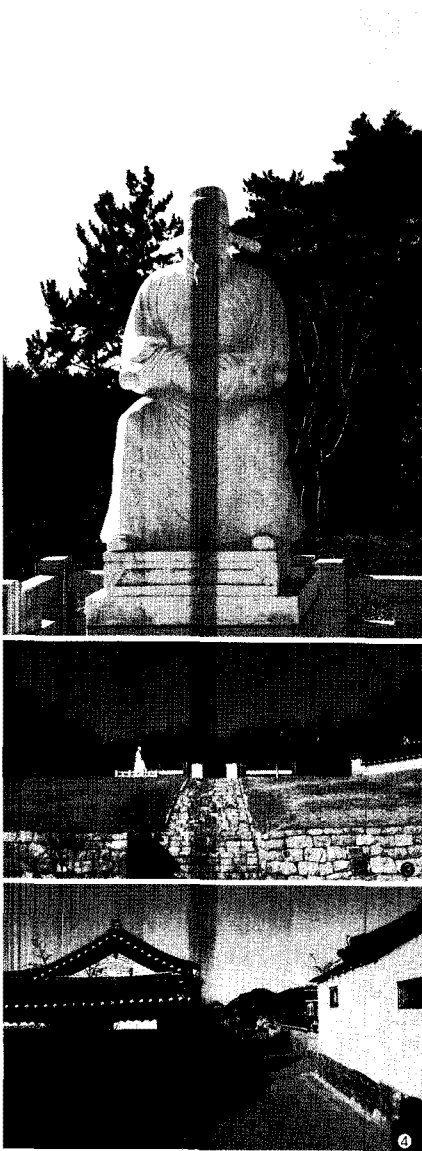
목은 이색의 탄생지 과시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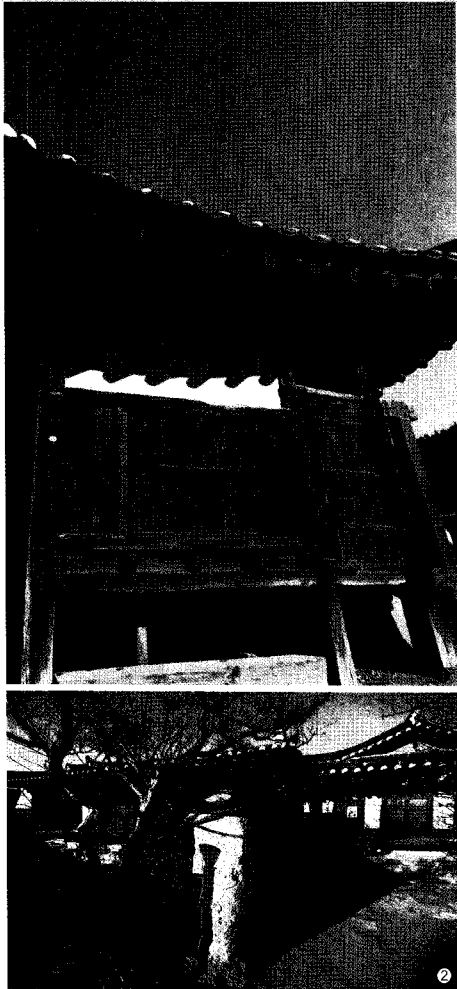
동서울터미널을 출발한 버스가 영덕버스정류장에 도착했다. 4시간 30분 동안 달려 온 차에서 내려 기지개를 폈다. 남쪽이라서 더 따뜻했지만 바람은 머리카락을 형클 어놓을 만큼 세차게 계속 불었다. 영덕버스정류장에서 영해 가는 버스에 오른 지 15분 정도 지나자 영해버스정류장이 눈에 들어온다. 정류장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 과시마을로 가는 길을 물었다. 친절하신 기사님이 “여기서 1km 정도 밖에 안 되니 걸 어갈 만하다.” 고 말하면서 가는 길을 알려준다.

그 길을 따라 걸었다. 곧게 뻗은 길이 영해의 중심가 같다. 그 길의 끝 로터리에 이르자 3.1만세운동 기념탑 너머로 과시마을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보인다. 이정표를 따라 걸다가 만난 갈림길에서 왼쪽 도로를 선택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과시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한적했고 골목길 돌담 아래 양지바른 곳엔 꽃이 피어 있었다. 겨울인데 겨울 꽃 같지 않게 아리따다. 겨울에 보는 꽃은 마치 한옥의 멋이 서린 전통마을처럼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는 향기로 그윽하다. 돌담이 이어져 더욱 정겨운 골목길을 따라 큰 나무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윽고 ‘목은 이색 등산로’ 라 선명하게 적힌 이정표대로 큰 나무 앞을 지나 숲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바람이 쉬지 않고 부니 대숲 전체가 바람에 일렁거린다. 대숲과 소나무 숲을 거쳐 그렇게 약 200m 정도 오르막을 오르니 갈림길이 나온다. 목은 이색 기념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걷는 길에 마른 소나무 향기가 온 몸을 알싸하게 감싼다.





① 괴시마을 구계덕, 영남지역 건축의 전형
 ② 조선 시대 남택만의 증손 남유진이 건립한 한옥

이색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곳 괴시마을이다. 기념관 옆으로 그가 태어난 집터임을 알리는 표시가 또렷하다. 이색은 고려말기 유학자로서 고려의 과거에는 물론 원나라 과거에도 합격했던 유능한 인재였다. 그렇게 기념관을 돌아 다시 마을로 향했다.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은 언덕이 길 왼쪽에 보인다. 언덕에 올라 바라보는 마을이 포근하고 아늑하다.

서남향으로 들어앉은 마을은 따듯하고 몽환적인 오후의 햇살을 가득 안고 있었다. 바람 부는 언덕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다.

300년 전 한옥들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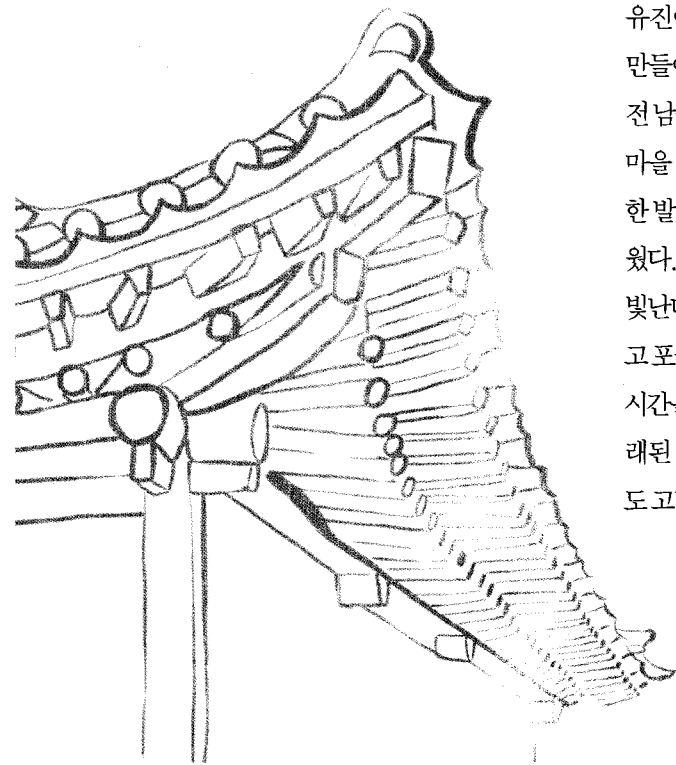
괴시마을은 고려말에 함창 김씨가 처음 터를 잡으면서 탄생했다. 함창 김씨는 목은 이색의 외가이고 외조모가 지금 괴시마을 이루고 사는 영양 남씨다. 괴시마을의 원래 이름은 '호지촌' 이었는데 목은 선생이 중국에서 보았던 괴시마을 풍경과 '호지촌' 의 풍경이 닮아 마을 이름을 '괴시마을' 로 바꾸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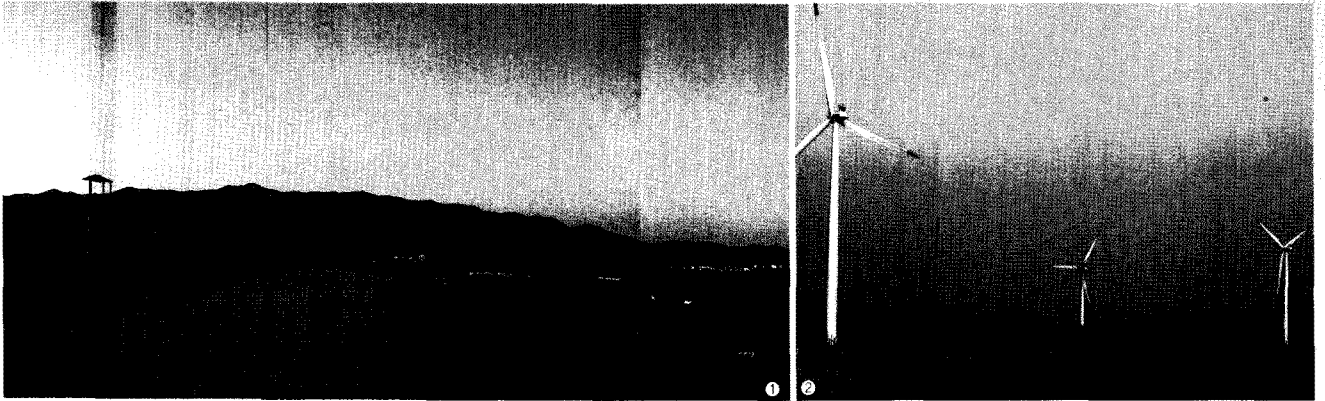
마을로 내려와 가장 먼저 들른 집이 '구계덕' 이다. 구계덕은 1805년에 지은 집으로 1910년에 중수를 거치면서 200년 넘게 그 은은한 자태를 간직하고 있다. 구계덕 외에도 영양 남씨 괴시파 종택, 경주덕, 주곡덕, 천전덕, 해촌고택, 대남덕, 영감덕, 영은고택 등 200~300년 된 한옥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마을은 그 자체로 명승지다.

괴시마을 집들은 입구(口)자 형태의 가옥으로 조선 후기 영남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마을의 여러 집 가운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집이 두 채 있었는데, 하나는 영양 남씨 괴시파종택이고 또 하나는 물소와 고택이었다. 물소와 고택은 조선시대 좌승지로 추증(追贈)된 물소와 남택만의 증손인 남유진이 세운 집이다. 남자의 생활공간인 사랑채와 여자의 생활공간 사이에 담을 만들어 남녀의 공간을 엄격하게 분리한 것이 특징이다. 괴시파 종택은 약 300년 전 남봉익 선생이 건립한 것으로서 입구(口)자 형의 정침과 사당으로 구성됐다.

마을 돌담길을 따라 걷는 길이 참으로 설레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한 발 한 발 천천히 발걸음만 옮길 뿐이었거늘 마음이 파란 하늘 위 구름을 밟은 듯 가벼웠다. 마알간 햇별을 가득 품은 듯한 괴시파종택의 흙벽이 황토빛으로 따듯하게 빛난다. 격자창살 위에 바른 한지는 햇별 알갱이를 걸러 모아 놓은 것처럼 은은하고 포근하다.

시간을 잊은 채 300년 전 마을을 걸으며 생각했다. '한옥마을을 걷는 일이 내 오래된 미래와의 만남이기를...' 한옥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살면 더 이상 걱정거리도 고민거리도 없이 한결 넉넉하고 여유로워질 것이다.





① 고래볼해수욕장 ② 강죽해안도로의 풍력발전소, 거대한 풍차가 바다를 향해 서있다.

4km 솔숲과 백사장, 고래볼

마을을 나와 도로 오른편을 따라 걷다보니 어느새 대진항이다. 작은 항구였지만 동해의 바다 풍경을 한아름 안고 있는 마을이었다. 배가 정박한 항구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마을 할아버지네 분이 앉아 햇볕을 쬐고 계셨다. 그 뒤로 보이는 항구가 호수처럼 잔잔하다. 길가에는 햇볕에 몸을 내어놓은 오징어들이 가득하다. 푸른 하늘 아래 겨울바람을 맞으며 살이 익어가는 오징어는 겨울 동해안 해안도로의 진풍경이다. 대진항에서 다시 북쪽을 향했다. 길은 바다와 마을을 나누어 주는 경계이기도 했으며, 마을과 마을을 잇는 '마실길' 이기도 하다. 마실로 가는 마음으로 걸어 대진해수욕장에 이르렀는데 작은 해변이 깔끔하고 정겹다. 해수욕장 뒤로 갯골을 건너는 '고래볼대교' 가 놓였는데 이 운치 있는 다리를 건너면 고래볼해수욕장의 남쪽 끝이다. 이곳부터 고래볼해수욕장의 북쪽 끝까지 4km다. 4km 내내 백사장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며 그 뒤로 소나무 숲도 4km에 걸쳐 이어진다. 바다와 해안선을 따라 길게 늘어선 소나무숲은 흔히 볼 수 없는 장관이다. 들고 나는 파도를 피해가며 백사장을 따라 유유히 걸어도 좋다. 소나무 향기 그윽한 숲이 나란히 이어지는 터라 백사장을 건다가 소나무숲에 들어설 수 있다. 고래볼해수욕장 북쪽 끝에 음악분수대와 돌고래조형물이 있었다. 겨울이라 음악분수는 작동하지 않았지만, 돌고래조형물은 그 자체로 특이하고 생경해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보인다.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돌고래조형물 앞 백사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고운 모래가 물결무늬를 띠고 있다. 바람의 흔적일 것이다. 이곳에서는 바람도 파도를 닮은 걸까. 아무도 밟지 않았을 것 같이 뽀얀 백사장에 자박자박 발자국을 새기며 바람처럼 물결처럼, 걷고 또 걸었다. **MEDY**_{CHECK}

Tip

고시마을에서 고래볼까지 여행정보

자가용 : 서울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서안동IC - 안동시내 통과 - 영덕 - 영해 - 고시마을(이후 고시마을 앞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가 '대진항·축산항' 이정표 따라 우회전 해서 바다 쪽으로 가다보면 대진항, 대진해수욕장, 고래볼대교, 고래볼해수욕장이 차례로 있음)

대중교통 : 동서울버스터미널 출발 영덕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면 영해 가는 버스가 자주 있다. 영해버스터미널에서 약 1km 거리에 고시마을이 있다. 고시마을에서 대진항까지는 도로를 따라 걷는다. 대진항 북쪽 대진해수욕장을 구경하고 고래볼대교를 건너면 4km의 백사장이 이어지는 고래볼해수욕장이 나온다. 돌고래조형물과 음악분수대가 여행의 종착점.

먹을거리 : 영해에서 남쪽으로 자동차로 약 20분 거리에 강구항이 있다. 강구항 대게 거리는 겨울이면 영덕 특산품이자 대한민국 겨울 대표 먹을거리인 대게 맛을 보러 온 사람들로 넘쳐난다. 강구항 난전은 게를 사고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